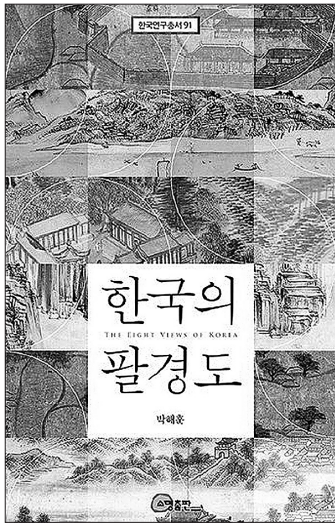


박해훈 저, 『한국의 팔경도』 (소명출판, 2017.03)

고연희*



八景圖는 한국 산수화의 전개에서 중요한 테마이며 틀이었다. 새로 나온 『한국의 팔경도』는 이러한 팔경도를 集大成한 책이다. 책의 저자는 중국 明代 浙派의 樣式을 고찰하여 석사논문을 썼고, 중국과 한국의 瀟湘八景圖 양식을 분석하여 박사논문을 쓴 산수화 전공자로 국립중앙 박물관에 근무하며 해외소장품을 폭넓게 섭렵하였으니, 팔경도를 망라하여 집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구자다.

책은 중국의 소상팔경도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고려로 전래되었는지를 살피는 진지한 탐색으로 출발한다. 北宋의 宋迪이 그린 <소상팔경도>가 한 권의 平遠山水 두루마리였음을, 고려의 문인이 이 작품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을 논하면서 저자는 독자를 그 시절로 데려간다. 조선왕

실로 들어서면 安平大君이 주도한 『소상팔경시권』의 비밀이 탐색된다. 시권의 발단인 南宋 황제 寧宗의 팔경시의 전래 당시 모습을 搨本(중국 소장)으로 감상하고, 시권에서 사라진 安堅의 그림은 일본 幽玄齋 구장의 <소상팔경도> 화풍으로 감상한다. 저자의 치밀한 고찰이 아니라면, 시만 남은 시권으로 어떻게 이러한 입체적 감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조선시대를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와 말기로 時期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소상팔경도를 제작 順으로 보여주고, 각 시기의 기타팔경도를 아울러 소개했다. 이 책에서의 기타팔경도란 소상팔경도식 표제를 활용한 다른 지역 팔경도 외에도, 名勝集景의 팔경·십경까지 두루 포함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다. 그러느라 이 책은 한국의 팔경도 세트 50여점을 도판으로 실었다. 도판은 거의가 칼라이다. 그 중에는 보기 어려웠던 해외소장품이 상당수 포함된다. 저자는 양식을 근거로 모든 작품의 제작순서를 결정했고, 작품명으로 책의 목차를 삼았다. 독자가 찾아보기 용이한 구성이다. 각 작품의 양식과 작품 간의 관계는 전문가의 안목과 용어로 설명되어 있다. 진주국립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 이후에 일본 다이간지 소장의 <소상팔경도병>이 그려졌고 安擘의 전칭작 <소상팔경도>는 그 후에 그려졌다고, 저자는 16세기 산수화의 양식사를 구축했다. 조선후기 鄭澈으로부터 악양루가 크게 그려진 ‘洞庭秋月’ 圖像이 조선말기로 전개되며 부각되었다는 점을 밝혀준 설명은 도자기 연구자의 산수문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아쉬움을 찾자면, 각 시기의 팔경을 소상팔경과 기타팔경으로 양분함으로써 소상팔경을 중심으로 두고 기타팔경을 주변으로 처리한 인상을 남긴다는 점이 아날까 한다. 저자는 기타팔경을 소상팔경의 ‘확산과 토착화’라 하고, 기타팔경의 유래와 출발에 대한 설명을 소략하게 했다. 사실, 소상팔경의各景 제목은 시적 운치의 時間을 제시하면서 보편적 이상경을 추구했다면, 기타팔경도 가운데 명승팔경류는 각경 제목을 地名으로 내세워 특정 空間의 풍경을 강조하였기에 그 差異가 크다. 명승 집경은 중국에서도 별도의 역사를 구성하였고, 한국문학계에서도 소상경과 명승경의 차이에 대하여 정치적 내면의 반영이거나 심미적 양 갈래의 공존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조선후기 명승팔경도는 크게 유행하여 소상팔경도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 점은, 저자의 박사논문 주제가 소상팔경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팔경도를 두루 다루어 한국의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이해할 일일 것이다. 또 한편의 사소한 아쉬움을 들자면, 金明國과 李在寬의 거품 소상팔경도들만 유난히 흑백으로 실은 점이다. 특히 이재관의 그림 위 제화시를 옮기느라 저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니, 추후의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서평자의 아쉬움은 좋은 옥에서 작은 티를 찾는 작업이었다.

왜냐면 『한국의 팔경도』는 척박해진 산수화 연구에 내린 단비와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회화사를 기술하려면 여전히 산수화 양식의 전개양상이 기본인데 요즈음 한국회화사의 연구 경향은 기록화, 장식화, 영모화, 역사·서사적 주제, 혹은 사회경제적 요소 등 다각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추세라, 산수화에 집중할 논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연구풍토 속에서 이 책은 산수화의 중요한 테마였던 팔경도를 통사로 엮어냈다. 고전적인 양식사 방법론의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좋은 책이다. 풍부한 팔경도 자료를 망라하여 준 점에서, 한국회화사 연구자라면 곁에 두고 틈틈이 펼쳐보게 될 고마운 책이다.